덕진소방서, 직원 소통 징검다리 공감소통관 선정

허선규센터장

노용택 대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소방경 허선규 금암119안전센터장과 소방장 노용택 금암119안전센터 대원이 전주덕진소방서 직원 소통을 책임질 '공감소통관'에 위촉됐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하나된 조직문화 강화를 위해 '공감소통관'을 선정·운영 중이다.

'공감소통관'은 직원 개인 고충 상담과 해결, 직원 소통의 구심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뱅크, 상하 직급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감소통관' 선정은 직원 간 소통을 책임지는 직책인 만큼 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직원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며, 소방경 계급 중 최다 득표를 한 허선규 금암119안전센터장이 '공감소통관'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허선규 금암119안전센터장은 소방행정팀과 협의 끝에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할 소방장 계급의 노용택 대원을 추가로 확대 선정했다.

소방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투표를 통해 '공감소통관'으로 위촉된 허선규 센터장은 이번 '공감소통관' 선정 이전부터 '직원과 공감하는 센터장'으로 직원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다.

소방서 직원들은 "허선규 센터장의 공감소통관 선정으로 인해 우리 조직이 더욱 가족 같은 소방 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허선규 센터장은 "소방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공감소통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경아 기자

덕진경찰, 아중초 부근 범죄환경개선 간담회 개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23일 아중초등학교 인근 범죄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경찰서 T/F팀(생안·여청·교통)과 전주시청 도시정비과 간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아중초등학교 인근 범죄취약 환경개선 및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시설물 추가 설치 등 실무위주의 논의로 진행했다.

김태형 덕진경찰서장은 "아중초 인근 범죄환경개선사업으로 사회적약자보호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등 사회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매우 중요"

차량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저감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매우 중요하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주로 고속도로 및 외진 곳 발생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화재 시 휘발유 등 각종 연료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에 따른 초기 진화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소화기는 대형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 여부 및 KC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KFI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불량 소화기 구매를 막을 수 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진압용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도 같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파티마신협,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전주파티마신협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한 '2023년 파티마신협 어부바 간식꾸러미 박스' 지원사업을 재개했다.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자체 사회공헌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위해 과일, 유제품, 간식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산구는 간식지원이 필요한 20명의 아동을 선정하고 전주파티마신협은 대상 아동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월2~3회(총21회) 총1000만 원 상당의 간식꾸러미 박스를 지원하며 20명 중 15명의 아동들은 조합의 사회공헌사업으로, 5명의 아동들은 전주파티마신협 임직원과 조합원 기부금으로 간식꾸러미박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전주파티마신협 양춘제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으로서 나눔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어 대단히 보람된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작지만 온정이 마음속 깊이 전달됐으면 한다"며 "현재는 완산구청과 함께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 지역 내 초·중학교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파티마신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경아 기자

'땀 흘리는 만큼 결과 따라 올 농업'

진안군 농민회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개최

진안군 농민회(회장 박시진)는 23일 부귀면 다목적 구장에서 계묘년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영농발대식을 열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례 행사와 영농발대식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이미옥 진안군 부의장, 전용태 도의원을 비롯한 진안군 의원들과 조합장 등 많은 관계자들과 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해 농민의 기본권 확대와 농업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고 토론했다.

또한 농민회는 영농준비 강화를 다지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농지개혁과 경자유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박시진 농민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서 진안군 농민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올해는 좋은 기상 상황과 함께 풍년농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현재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민수당 확대 및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등을 통해 땀 흘리는 만큼 결과가 따라올 수 있는 농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병원 곽한울·박태영 전공의 '우수학술상'

곽한울전공의

박태영 전공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구강악안면외과 구정귀 교수 연구팀의 곽한울(2년차)·박태형(1년차) 전공의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치아유래 골이식재를 이용한 구강조직 재생 효과를 발표해 우수학술상을 23일 수상했다.

곽한울 전공의는 '재조합 사람 골 형성 단백질을 처리한 동종탈회상아질질과 결합조직이식을 통한 치근 피개'를 주제로 사람재조합 골 형성 단백질을 코팅한 치아유래 골이식재와 유리치은이식술을 이용한 치근 피개 술식의 효과를 발표해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박태형 전공의는 '파우더 형태의 자가 탈회 상아질 매트릭스를 치주결손부에 적용한 증례 보고' 주제의 임상결과를 통해 치아유래 골이식재를 이용한 골재생 효과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람 치아의 구성성분 중 상아질(Dentin)은 그 화학적 조성이 턱뼈와 거의 동일한 특성이 있다. 특히 상아질은 무혈관성(Avascular), 무세포성(Acellular) 1형 콜라겐 기질로 되어 있고, 상아질 내부에는 몇몇 성장인자 단백질(Non-Collagenous Proteins, NCPs)들이 있다.

이 상아질 내부의 성장인자 단백질은 골형성에 기여하는 BMP-2 뿐 아니라, TGF-β1, FGF, VEGF와 같이 연조직 치유에 기여하는 성장인자가 많이 있다.

이 단백질(NCPs)들은 상아질 내 무기질(Hydroxiapatite, HaP)와 결합하고 있는데, 사람재조합 골형성단백질(rhBMP-2)을 함께 적용하거나 골이식재의 크기를 조절해, 골흡수(osteoclastic resorption)를 촉진시켜 NCPs의 방출을 유도함으로서, 치아유래 골이식재 내부의 경조직과 연조직 성장인자를 효율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다.

이는 치주질환 뿐 아니라 악골 낭종과 같은 질환에 의한 구강악안면부 골 결손부에서 우수한 조직 재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곽한울·박태형 전공의의 이번 연구 결과는 치아유래 골이식재를 이용한 구강조직 재생효과를 밝혀낸 것으로 특히 상아질 매트릭스가 치주질환 뿐 아니라 악골 낭종과 같은 질환에 의해 골과 치은이 모두 소실된 부위에서도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향후 구강조직 재생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경아 기자

남원소방서, 남원시 가족센터와 업무협약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22일 남원시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출생아 100명중 6명이 다문화가족으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과 아동 등 이주민의 규모와 역할이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이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안전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정기적 소방 안전에 대한 지원을 협약, 주요 내용은 △주택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지원 △소방안전 컨설팅 △다문화가족 소방안전체험 및 소방안전캠프 운영 등이다.

한편 소재실 서장은 "화재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재난안전 등 다방면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해경, 바다 숲 보호 예방 위한 대책 추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탄소 중에서 해양생태계에 흡수되는 블루카본 증가를 위해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자라나는 '바다의 숲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블랙카본은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탄소, 그린카본은 나무 등 육지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이며, 블루카본은 연안의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다.

부안해경은 관내 부안, 고창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부안군과 포스코건설, 월드비전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바다 숲 조성 활동, 대국민 블루카본 계몽 홍보, 연안 생태계 해양오염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 "바다 숲" 보호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건강한 학교만들기 추진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일신)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의 중추기관으로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용성중과 연합해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용성중 정문에서 진행된 이번 아웃리치는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며 '1388청소년전화'를 홍보했으며, 1388청소년 전화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안감과 무기력함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아웃리치에 참여한 학생회 친구들은 "학교폭력 멈춰"라는 구호를 외치며 활동에 동참했으며,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마음 편한 학교가 되도록 먼저 행동하겠다"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이 23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정호 의장은 제9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8개월간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견제와 감시로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임정호 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동시에 책임성 또한 커졌다. 앞으로 더욱 지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정에 앞장서겠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 협력 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 2023년 청년공감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 김제청년공간 E:DA(이다)에서 2023년 김제시 청년공감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지원자를 모집하여 50명의 청년공감 서포터즈를 선발했으며, 서포터즈는 12월까지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활동한다.

또한 청년과 행정을 잇는 소통창구로써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공감 서포터즈 발대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2023년 새롭게 모집된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청년공감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날 이루어진 청년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청년 정책사업 추진방향, 김제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등 질의응답 형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들과 만나 함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보니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청년공감 서포터즈를 통해 발굴 및 제안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서남상의, 모범상공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제50회 상공의 날(3월 15일)을 맞아 모범상공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여식이 3월 23일(목)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에서 있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매년 상공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경제성장, 발전에 공헌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인과 관리자 등 유공자를 정부에 추천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로는 30년간 정읍에서 건설자재 업체를 운영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고려종합건재 이상영 회장, 그리고, 지역사회에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콘크리트 제조업체 (주)무일콘크리트 김형남 부사장과 유통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유)농축수산원유통 김현영 대표이사, 30여 년간 농업발전에 노력한 농기계제조업체 정주농축산기계 김희광 대표이사, 직원복지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노사화합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주류도매업체 고창주류(유) 정용철 대표이사가 각각 산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